

2008년 양돈 산업의 전망과 과제

## 필드에서 보는 2008년 양돈질병 대책

글 \_ 피아씨코리아(주) 윤용대 차장



최근 2008년 돈가가 10% 하락하고, 사료비가 15%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인

농가가 약 31%로 확대될 것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양돈농가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다. 답은 간단하다. 즉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우리 농장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돼지고기를 출하해야 한다.(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MSY 18~20두)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수익 발생이 어려울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모성 질병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존을 위해 통제해야 하는 2008년 양돈질병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후보돈을 공급받고 있는 종돈장이 유전력이 높으며, 건강위생상황이 우수한 하나의 종돈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 후보종돈의 위생상황이 우리 농장보다 높아야 하며, 단일한 GP 농장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농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최소화하는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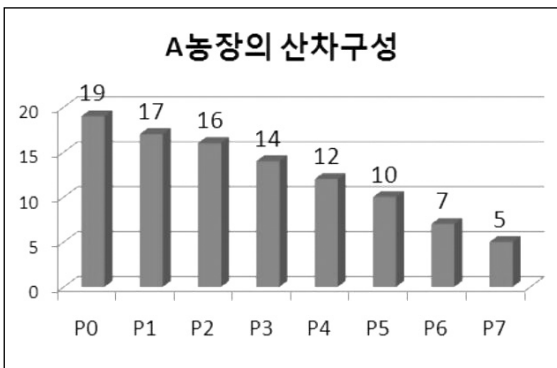
2. 후보돈을 사육할 격리 후보돈사 또는 돈방이 존재하는가?

➡ 후보돈이 입식되어 격리, 환경적응(백신접종 등), 그리고 배설을 완료하여 기존돈군(종부사)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사육될 후보돈사는 번식돈군 더 나아가서 농장 전체의 질병을 안정화 및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돈사가 없는 농장은 세척/소독/건조된 중부사로 입식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후보돈을 비육사(차단되고 세척/소독/건조된)로 입식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 PRRS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60일 이상의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 3. 모돈교체율을 연 40~50%(2~5산차 모돈비율을 50% 이상), 6산이상의 비율을 15% 이하로 가져가는가?

- 연간 모돈교체율을 40~50% 이하로 가져간다면 당연히 산차구성이 어려워져 노산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상시모돈대비 많은 두수를 출하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높은 PSY이다.



\* 연간 모돈 갱신율 = 50~60%

\* 평균 산차 = 2.8~3.2산

2~5산차 모돈비율 = 52%

PSY를 높이기 위해서는 2~5산차 비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산차의 새끼들은 생시체중이 불균일하고, 이유두수 및 이유체중이 적다. 자돈사 및 비육사에서 폐사할 확률이 높은 자돈은 이유체중이 작은 자돈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4. 임신모돈의 체형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적정 체형 점은 2.5~3.0이다. 임신돈의 90%가 체형 등급을 2.5~3.0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공수정 후 4~6주까지 85~90% 모돈이 적절한 체형이어야 한다. 매주 1회 모든 임신돈 체형 점검하여 사료량 조절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체중의 자돈들이 분만(1.3~1.5kg)할 것이다. 생시체중은 이유체중과 출하체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명심하자.

### 5. 자돈들이 태어난 후 12시간 이내에 충분한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 충분한 초유의 섭취는 포유육성율을 증가시키며, 큰 이유자돈을 이유시키는 기본이 된다. 자돈이 태어나자마자 건조가 되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포유개시두수가 많은 경우 모든 자돈의 초유섭취 이후(분만 후 약 3~6시간 이후) 24시간 이전에 분리포유(2시간 동안 큰 자돈들 절반을 바구니에 두고, 작은 자돈들 절반을 포유시킨다)를 실시한다.

## 6. 모돈들이 포유기간 동안 평균 하루에 최소 약 6kg의 사료를 섭취하는가?

➡ 이유 체중을 높이려면 모돈의 유량이 풍부해야 한다. 모돈의 유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차 구성이 적정해야 하며(2~5산비율 50% 이상), 모돈이 과비되지 않아야 하며(임신사 사료조절), 분만 후 3일령 이후에 많은 사료와 물을 섭취해야 한다. 분만사에서 포유기간 동안 약 6kg의 사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일일 최소 3회 사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분만사가 서늘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교차양자의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7. 최소 20~24일 사이에 자돈들이 이유되는가?

➡ 포유기간을 무한정 늘린다고 농장의 이유 체중이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유기간을 최소 20일에서 24일 사이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 8. 이유자돈들이 울아웃 된 후 세척/소독/건조되어 있는 자돈사로 입식되는가?

➡ 이유자돈들이 기존의 돈군들이 있는 돈사로 입식되어 입식 후 곧바로 나이든 환돈들과 접촉된다면 자돈사에서 질병순환의 고리(폐사율 감소)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9. 이유자돈 입식 후 1주 동안 특별하고 세밀한 관리를 하는가?



〈이유 첫주 바닥밥 및 점시급여기의 이용〉

➡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하며, 동시에 모든 자돈들이 사료 섭취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유시에 위축돈방을 비워 두어 이유 후 3일령과 1주일령에 위축돈(처지는 돼지들)들을 별도로 격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돈사 관리 key point

- 이유자돈들이 입식되기 전에 돈방을 예열
- 크기와 성별로 분류. 가장 따뜻한 지역에 더 작은 돼지들을 배치.
- 가장 작은 돼지들의 어깨 높이에 맞도록 니플 높이를 조정.
- 3~5일 동안 바닥(보온 매트 또는 점시급여기)에 사료 급여를 하고 24시간 내에 사료가 소모되도록 사료량을 급여
- 3일령에 처음 위축되는 돼지들을 분류하고 특별 관리를 실시
- 자돈의 체중 증가에 따라서 실내 온도를 점차적으로 낮추며, 적절한 사료를 급여

## 10. 육성돈들이 올라왔 뒤 후 세척/소독/건조 되어 있는 육성사 또는 비육사로 입식되는가?

- ➡ 육성돈들이 기존의 돈군들이 있는 돈사로 입식되어 입식 후 곧바로 나이든 환돈들과 접촉된다면 육성/비육사에서 질병순환의 고리(폐사율 감소)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11. 육성돈 입식 후 육성사 또는 비육사에서 입식초기 1~2주 동안 특별하고 세밀한 관리를 하는가?

- ➡ 입식시에 그룹별로 약 10%의 위축돈을 수용할 수 있는 돈방을 비워둔다. 1주일 후 위축 초기의 육성돈들을 비어있는 돈방으로 격리하여 특별한 관리를 실시한다. 1) 보온등을 켜준다. 2) 필요한 개체는 유효한 항생제로 2~3회 주사치료를 실시한다. 3) 동일 정상 그룹들에 비하여 한단계 아래의 사료를 급여한다. 이 돈방은 정상 사육밀도의 90% 정도를 사육한다.

## 12. 육성-비육 초기 특별한 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는가?

- ➡ 최근의 추세는 이 시기에 폐사가 높다는 것이다.
- ① 이 시기에 온도관리가 중요하다. 온도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전 돈사에서 온도 적응을 시켜 육성/비육사로 전입되어야 한다.
- ② 이 시기 문제가 되는 질병들(바이러스 질

병 및 홍막페렴)에 대한 백신 접종이 분만/자돈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입식 초기 1~2주 사이에 위축돈을 조기 발견 격리 후 특별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 13. 돼지의 올인/올아웃과 돼지 및 사람의 일방향 흐름이 정착되어 있는가?

- ➡ 돼지의 올인/올아웃이 되지 않으면 질병의 고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부분 디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올인/올아웃이 불가능한 농장은 최대한 올인/올아웃과 유사하게 돈사 구조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모돈규모가 작은 농장은 그룹 관리를 고려한다.

## 14. 새로운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 방역 체계가 있으며, 잘 가동되고 있는가?

- ➡ 질병이 통제된다고 해도 또 새로운 질병이 유입된다면 농장의 질병통제의 과정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차단방역은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정말로 기존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 ① 입식 종돈(후보돈, 웅돈, 정액). 도입종돈에 대한 격리(30일;백신접종)와 환경 적응(30일;백신접종계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후보돈에 대한 건강 정보와 후보돈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②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방문자의 농장 출입 시 샤워가 필요하다. 방문객의 경우 다운타

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③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농장 정문에서 차량 외부와 운전석에 대한 소독, 운전자 전용 장화 비치 등이 필요하다. 돼지 상하차후 가능하면 즉시 출하대와 주변에 대한 세척과 소독.

#### ④ 기타 부분에 대한 점검

위에 언급한 돼지, 사람 그리고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이외에 농장으로 입고되고, 출고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농장 맞춤형 점검과 대책이 요구된다.

질병문제를 통제하는 시작은 차단방역이다. 차단방역은 99%를 실행하고 1%를 실행하지 않아도

실패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드에서 보는 2008년 양돈 질병 대책은 위에 언급한 14가지 사항을 철저히 수행했을 때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PSY를 23~24두 까지 올리고 MSY를 20두 정도 까지 달성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농장의 경우 2008년도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2008년에 양돈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를 위해서는 기본을 철저히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